

다산포럼

다산 정약용과 가짜 뉴스



김태희
실학박물관 관장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호치민이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민족 해방과 통일을 이끈 지도자다. 동서를 넘어 인정받는 위인이다. 그런 호치민이 ‘목민심서’를 읽었다고? 여기에다 호치민이 다산을 존경한 나머지 다산의 기일을 알아내어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까지 더해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목민심서’의 권위를 올리는 데 좋은 소재들이다. 그런데 과연 사실일까? 확인된 게 없다.

‘목민심서’는 어떤 책인가. 다산의 ‘경제유표’가 국가 제도 개혁을 주장한 저서인데 비해, ‘목민심서’는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한 저서이다. 제도 ‘개혁’은 기약할 수 없다. 당장에는 제도 ‘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라도 일

선의 행정 책임자가 제대로 행정을 편다면,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다산이 밝힌 ‘목민심서’ 저술의 취지이다. ‘경제유표’가 개혁적이라면, ‘목민심서’는 보수적이다.

‘목민심서’의 어떤 구절은다산의 보수성 내지 전근대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인용되기도 한다. ‘예전’편 병등(辨等) 조항에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산은 영조의 노비법 개혁의 역기능을 말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는 노비가 없어 의병의 군사력을 보필 수 있었는데, 흥경래란 때는 노비가 없어 자율적 방어력을 갖추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산이 ‘경제유표’에서는 영조의 노비법 개혁을 칭송한 바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쓴 ‘목민심서’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호치민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베트남을 구할 새로운 혁명 사상을 좇았던 사람이다. ‘목민심서’는 베트남의 새로운 길을 찾기에 적합한 책이 아니다. 호치민이 한시를 읊고, 근면·절약·청렴·정직 등을 강조하고, 언설에 유교적 가치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목민심서’는 혁명가 호치민이 좋아할 그런 책이 아니다. 필자의 결론은 ‘목민심서’와 호치민이

아기는 외부의 권위에 편승하려는 그럴듯한 가짜 정보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야기. 지난 2012년에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있었다. 기념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소식이 있었다. 유네스코에서 정약용을 장 자크 루소, 헤르만 헤세, 클로드 드뷔시와 함께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했다는 것이었다. 다산이 2012년 세계 기념 인물 ‘4강’ 안에 든 것인가? 유네스코의 관련 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긴 제목(‘Celebration of anniversaries in 2012’) 아래, 세계 여러 나라가 국가별로 기념할 만한 문화적 사건이나 인물을 한두 가지씩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거명된 인물이 모두 30명이 넘었다. 그 가운데 익숙한 사람이 루소, 헤세, 드뷔시 정도였다. 서른 명이 넘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은 고작 유럽 사람과 우리나라 정약용 밖에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민망하기도 했다. 아무튼 다산이 ‘4강’에 든 것 같은 일은 아니었다.

관련 신문 기사들을 다시 읽어 보았다. 네 명이 선정되었으며 동양 인물로는 다산이 유일하다는 기사가 있었다. 명백

히 잘못된 정보다. 다른 동양 인물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네 명을 열거한 한 기사가 많았다. 거짓말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네 명만 선정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했다. 그 오독을 누구 탓으로 봐야 할까?

우리는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내부에서만 인정하는 것보다 평가의 면에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평가자의 제3자성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성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내부적 평가를 신뢰하지 못한 현실의 결과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모든 권위를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행태가 반영된 것이라면 심각한 반성할 만한 일이다.

가짜 뉴스의 양상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 준다. 가짜 뉴스의 생산자도 문제지만, 유포하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면 잘 따져 보지도 않고 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가짜 뉴스의 양상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붙잡고 사실 관계를 잘 따져 보자.

社說

근대 산업유산 전방·일신방식 최대한 보존을

옛 전남방직(전방)과 일신방직 광주공장이 85년 만에 평등 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방(주)과 일신방직(주)은 북구 임동의 광주공장을 광산구 평등 산업도로 이전하겠다고 하며 현 공장 부지의 용도변경 등 개발 계획에 대한 협의를 광주시에 신청했다.

두 업체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29만 1801㎡(8만 8000평)을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해 주면 연구개발 및 주상복합시설 용지로 쓰고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 일부가 갖지 못하고 모든 권위를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행태가 반영된 것이라면 심각한 반성할 만한 일이다.

가짜 뉴스의 양상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 준다. 가짜 뉴스의 생산자도 문제지만, 유포하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면 잘 따져 보지도 않고 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가짜 뉴스의 양상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붙잡고 사실 관계를 잘 따져 보자.

이 쉬운 식민지에 일본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첫 가동 당시 종업원 수만 3000명에 달했다. 또 60-80년대 섬유산업 활황기에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존 가치가 높은 시설들은 지켜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시도 공장용지 용도 변경은 업체 측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만큼 그 일부를 공공 기여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해당 부지와 시설들은 일제 수탈과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근대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개발 협상 과정에서 그 상징성을 살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아파트나 상업지구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보다 보존할 시설은 최대한 지키고 주변 지역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능 성적 유출...대입 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사흘 앞둔 그제(1일) 밤 수험생들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고 ‘인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이다.

공식 수능 성적 발표일은 내일(4일)이다. 하지만 지난 1일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능 성적표가 올라왔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이 ‘성적표를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 글의 작성자는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몇 번의 클릭으로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로 올렸다.

해당 글에는 ‘선착순 3명’이라고 적었지만, 1~2시간이 지나자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능 성적을 확인했다고 인증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성적 확인은 기존 성적 이력의 연도를 ‘2020’으로 바꾸는 식으로 가능했던 것이어서 재수생 등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

려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부 수험생은 곧바로 위법성 논란을 제기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성적을 부정 확인한 인원을 전원 0점 처리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성적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특히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성적 통지일에 앞서 사전 mock 테스트 기간이었는데,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된 것”이라며 “이 탓에 그날 밤 늦게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율해 수능 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수능 성적 유출 사태는 대입 관리의 안이함을 또 다시 노출시킨 큰 사고다. 무엇보다도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입시 문제에 대한 평가원의 이 같은 허술한 보안 관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 최대 규모 시험인 수능에 대한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다.

교단에서

지난 주말



김진우
일신중 교감

#토요일, 하모니카 동호인들과 위문 공연(재능 자랑?)을 갔다. 도심 외곽 산비탈에 남서향으로 지은 요양원이어서 풍광이 좋았다. 사계절의 변화가 가슴으로 들어올 듯 탁 트였다. 연분홍 원복을 입은 16명이 생활하고 계셨는데 대부분이 휠체어를 타고 중앙 거실로 모였다. 요새 급증하여 거리가커 들어선 노인주간보호센터(일명 노치원)는 낮에만 함께 생활하고, 요양병원은 심신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생활하며, 요양원은 그 중간쯤 되는 단계이다. 70-80년 지나온 세월의 길이는 비슷한데 표정이나 주름은 각자 있었다. 주로 아실 만한 흘러간 옛노래를 연주했는데도 몇 분을 빼고는 크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았다.

회원들이 재물을 피우면서 박수를 유도해도 잠깐 호응 하다가 다시 잠잠.

빠른 폴카 리듬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연주했는데 나만 온갖 품 잡고, 어른신들은 부산정거장인지 광주정거장인지 무표정이었다. 하모니카를 뒤야 연주머니에 넣으면서 후회했다. 적적하고 반복된 생활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나누려고 왔는데 착각인 것 같았다. 우리 회원들이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노인들이 우리를 위해 관객으로 동원되어 봉사에 주신 것처럼 생각되었다. 밥 한술 떠 드리고, 정갈하게 머리 한번 빗겨드리는 것이 낫지, 사지 말정하니까 하모니카 들고 제 잘난 맛에 곤대질 하는 느낌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공연 중에도 한쪽 구석에서 화투 패를 맞추고 있었다. 그분과 민화투 한 판 치고는 서둘러 요양원을 나셨다.

#일요일, 50대 중반의 중년이 색소폰을 들고 음악학원 원장을 찾아왔다. 몇 백 명이 모인 곳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아코디언으로 반주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배운 지 3년 됐는데 수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연주를 한다. 약기 3년에

발표회라, 놀라웠다. 그런데 몇 곡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여러 모습을 내보였다. 그의 답변은 이랬다. “나도 나팔 3년 불었다” “프로 될 생각은 전혀 없고 즐겁다고 한다” “색소폰인 내가 주연이니 아코디언은 소리를 죽여라” “청중이 많아 떨 수 있으니 그때 커버를 잘해 달라” “정치인 누구도 오고 또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이 엄청 온다” 원장의 표정이 변해갔다. 40여 년 아코디언 연주로 한강 이남에서 손가락 안에 든 분이이다.

두 분이 연주를 맞춰보고 나서 “교직에 있는데 악기를 좋아한다”고 원장이 나를 소개하니 대뜸 “얼릉 그만 두세요, 우리 학생 시절에 나이 든 선생님들 생각하면 쓰것습니까?”라고 했다. 뜨끔했다. ‘이 양반이 내 이력을 알고 있나?’ 순간 답변이 궁했다.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그만 두면 평교사 한 분이 승진할 것이며, 그 자리에 신규를 채용하니 일자리 순환도 되고, 나이 들어 갈수록 호감도 떨어지니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전남 어느 교육장 ○○○하고 친하고, 교장 누구누구를 알고...” 대단했다. 초면에 이렇기도 힘

든데.

알고 보니 연주회가 아니라 어느 정치인 행사 식전 프로그램으로 뽕짝 두어 곡 연주하는 것이었다. 색소폰 소리도 딱 3년만 씩 쇠소리가 났다. 왕관대를 앞에서 끈대질을 하더니, 허름한 학원 분위기 때 문이었을까, 노악사(老樂士)가 빠진 머리카락 감추려고 쓴 색바랜 모자 때문이었을까, 색소폰 금빛처럼 손이 좀 있어서 일까. 색소폰이 떠난 후 원장은 들리려 서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돈 몇 푼 후원하면서 웬만한 민원은 한 다리만 거치면 해결될 것처럼, 유명 인사는 다 아는 것 같은 이 초겨울의 중년. 하기가 지금도 정치인 주변을 맴돌다가 물들어 오니 노 젓고 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기에 이런 경박하고 비루한 연행이 통한지도 모른다.

묵직한 아코디언을 메고 학원을 나섰다. 가로수 낙엽이 길가에 받치던 중고차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푸른 잎 아니었던 단풍 없고, 새 차 아니었던 중고차 없은진대.

지난 주말은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앞 주말은 엄청 기쁜 일이 많았다. 다음 주말은 어떻게 모르겠다.

기 고

국가가 ‘묻은’ 민주주의, 시민들이 다시 ‘묻다’

‘프리 홍콩(FREE HK) 그리고 ‘프리 광주(FREE GJ)



송혜림
조선대 법학과 3학년

야경의 낭만, 쇼핑의 천국으로 손꼽히던 홍콩이 공포와 비명으로 잠잠된 암흑으로 뒤덮힌 건 순식간이었다. 2014년 ‘우산 혁명’ 보다도 더 큰 규모로 일어난 이번 홍콩 시위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했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자, 서로를 부당함에서 지켜 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순고한 용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는 무차별적인 곤봉질과 매캐한 최루탄을 통해 부당한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과거와 ‘달랐다’라고 한다. 바로 1980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눈물을 지금의 홍콩시민들이 뜨겁게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우산 혁명을 넘어 2019년 다시금 검정 우산을 펼친 이들도, 역사의 아픔을 겪지 않았던 ‘대학생’들이었다.

다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홍콩인이라는 자긍심과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극심해지는 통제와 압박, 도 넘은 정치 개입에 거리를 서서 분노를 터트렸다. 그들은 시위 물품을 나누거나 일정을 공유하는 등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섰다.

교과 40년 전인 1980년, 대한민국 광주에서도 대학생들의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피로 흥건한 머리를 동여매고 화염병을 집어 들었다. 대부분의 시위는 홍콩처럼 청년들이 선두에 섰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수많은 광주 청년들이 절규했던 가치도 단 하나, 처참히 짓밟혀 버린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한 집단의 목소리를 목살하고 왜곡하는 것은 쉽다. 바로 ‘폭동 규정’이다. 독재 권력은 지배 체제에 반하는 시위는 국가 질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력 제압을 정당화한다. 국가 정상과 명목 하에 죄없는 시민들이 총과 칼에 희생되며 자유는 빛을 잃고 민주주의는 정의를 상실했다. 광주 시민을 향한 공수 부대의 탄압, 그리고 홍콩시민을 향한 경찰 부대의 폭력은 그 잔인함마저 닮아 있었다. 시위의 배후를

추정하며 순고한 시민 정신을 폄하하는 허언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올았다.

정부와 강대국에 의해 폭동으로 규정된 두 시위는 과연 ‘조직화된 폭력’이었을까. 현재의 홍콩 시위와 광주 민주화운동은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낸 목숨 건 투쟁의 산물이었다.

대학생연합단체 홍콩 IAD의 조이 수는 2014년의 지도부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시위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었기에 이번 시위에서 ‘지도부’가 없어진 이유를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역시 자발적인 항쟁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문건과 증언록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시민들의 모금으로 가두방송단을 조직해 정보를 전했고, 리어카를 몰며 주먹밥을 나누며, 자발적으로 시민 공동체를 이뤄내 질서를 바로 세웠다. 자유가 침탈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발현한 순고한 시민 정신을 어찌 선동되었다 힐난할 수 있는가. 홍콩 시위와 광주 항쟁의 자발적인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획을 세웠다.

일부 언론은 홍콩 시위의 이유에 대해 ‘비싼 집값과 경제 불황’ 때문이라 보도했다. 이는 이백만 홍콩시민들이 고작 개

인의 이익을 좇고자 ‘민주주의’를 빙자해 난동을 부린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했다. 노골적인 목적 왜곡은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존재했다. 당시 신군부와 관련 언론은 광주시민들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정부와 달라 폭동을 일으켰다며 무력 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대적 보도를 이어갔다. 홍콩이 힘든 생활 문제에 그쳐 소란을 일으켰다면 광주는 이념 자체가 왜곡되어 반동분자로 몰렸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보도 양상은 중국 정부와 신군부라는 거대입김의 결과였다. 다행히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라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은 그 명예를 되찾고 있다.

홍콩시민들은 우리의 ‘춧불 시위를 통한 정권 교체’를 통해 희망을 얻는다고 말했다. 많은 희생과 투쟁으로 독재를 몰아내고 개혁을 이뤄 내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지난간 역사 속 민주화를 위한 아픔의 과도를 거두고 있는 지금의 홍콩. 같은 아픔의 역사를 지닌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연대의 손을 잡을 차례다.

※이 기고는 제31회 조대문화상 논설·평론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간추렸다.

無等鼓

60여 년 동안 나무를 심고 가졌다. 처음부터 유원지나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오로지 ‘날아 주신 어머니’와 ‘길러 주신 어머니’를 위한 효심(孝心)으로 한 일이었다. 어린 묘목들은 자라 울창한 숲이 됐고, 20대 청년은 어느새 80대 할아버지가 됐다.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초암마을에 자리한 ‘초암정원’을 가꾼 정림 김재(80·전 광주은행 상임감사) 씨의 이야기다.

그는 여덟 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3호로 등록되면서 세상이 알려졌다. 마삭줄(당귀나무의 일종)로 꾸며진 아치형 대문을 들어서면 호랑기사나무, 향나무, 종려나무 등이 차례로 눈에 들어온다. 마침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피리칸사스’에는 직박구리가 내려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열매를 쪼아 먹고 있다. 요즘 정원에 산다화(山茱萸)가 한창이다. 오희 ‘애기동백’으로 불리는 산다화는 동백과 비슷하지만 다른 꽃인데, 편백나무 숲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좌우에 형형색색으로

보성 초암정원

꽃을 피웠다. 색깔과 형태가 각기 다른 6종의 꽃이다. 주인장은 ‘개인 집’으로 세상을 떠난 ‘날아 주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색다른’ 나무를 구해 묘소 주위에 한 그루 한 그루씩 심기 시작했다. 주로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 난대수종이었다.

또한 ‘사랑으로 길러 주신 어머니’를 위해 서도 밭에 나무를 심었다. 허리가 굽도록 농사일을 계속하시는 어머니가 이제 그만 편히 쉬시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산비탈에도 매년 100그루씩 편백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60여 년간 효심으로 가꾼 초암정원은 지난 2017년 10월에 ‘전남도 민간정원

꽃을 피웠다. 색깔과 형태가 각기 다른 6종의 꽃이다. 주인장은 ‘개인 집’으로 세상을 떠난 ‘날아 주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색다른’ 나무를 구해 묘소 주위에 한 그루 한 그루씩 심기 시작했다. 주로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 난대수종이었다.

또한 ‘사랑으로 길러 주신 어머니’를 위해 서도 밭에 나무를 심었다. 허리가 굽도록 농사일을 계속하시는 어머니가 이제 그만 편히 쉬시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산비탈에도 매년 100그루씩 편백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60여 년간 효심으로 가꾼 초암정원은 지난 2017년 10월에 ‘전남도 민간정원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